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숲가꾸기로 되살린다!

-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숲가꾸기로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 실시 -

- ◇ 산림청(廳長 申洵雨)은 11. 23일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 산림에 대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숲가꾸기를 통한 병해충방제(임업적방제)를 최초로 실시한다.
- ◇ 금번 방제 대상지는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의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를 입은 숲으로 나무의 피해는 물론 서울 관문의 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주로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곰팡이 균으로서 1996년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주로 활력도(건강성)가 떨어진 소나무류 숲에 많이 발병한다. 특히 푸사리움병원균은 농약으로는 방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까지 1,853ha의 피해 산림에 대해 속수 무책이었다.

- ◇ 그러나 숲가꾸기를 통하여 숲을 다시 건강하게 함으로써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을 방제할 수 있다고 산림청 임업연구원 김경희 연구관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초로 실시하는 임업적 방제인 만큼 임업연구원에서는 금번 방제대상지를 시험림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 ◇ 산림청의 관계자는 “금번 방제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지와 숲가꾸기 방제가 가능한 피해지에 대한 조사 및 연차별 방제계획을 세워 숲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특히, 이번 숲가꾸기 방제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근로자 10명이 참여하였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특 성

- 병 원 균: 곰팡이 *Fusarium circinatum*
(= *F. subglutinans* f. sp. *pini*)
- 감염수종: 소나무류 30여종 및 더글러스퍼(전나무류)
- 피해증상: 가지, 줄기, 구과 등 감염부위에서 송진누출, 적갈색고사
- 침입경로: 바람, 매개충의 식해(食害), 사람 등에 의해 만들어진 상처를 통하여 감염
- 분포지역: 미국, 멕시코, 아이티,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일본
- ※ 피해사: '86년 미국 캘리포니아 라디에타소나무림에 발견
'89년 920만ha 발생, 감염율 85%, 고사율 25% 이상

□ 국내 발생 실태

- 국내발견: 1996년 경기지역 리기다소나무림에서 최

초 발 건

- 피해면적: 1,853ha (2001년 현재)
- 피해수종: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테다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방크스소나무, 해송
- 피해분포: 2개 권역(중서부지역, 남부지역)

□ 발생원인

- 병원균: 병원성이 강한 병원균의 국내유입
- 기주: 감수성수종(소나무류), 병원균에 대한 내성 결여
- 환 경: 과밀임분상태로 숲의 활력도가 떨어진 소나무류 숲

□ 방제대책

- 농약살포에 의한 방제가 어려움, 수종갱신(피해 심~중) 또는 숲가꾸기 등으로 활력도 회복
- 병든 가지 및 줄기 제거 소각
- 무병건묘(無病健苗) 생산공급